

# 英祖年間の王室墓域 石刻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A Study on the Engravers Participated in the Stone Carving of Royal Tomb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英祖)

김 상 호(Kim, Sang-Ho)\*\*

## ◁ 목 차 ▷

- |                      |               |
|----------------------|---------------|
| 1. 緒言                | 2.4 上諭封園都監儀軌  |
| 2. 刻手名 記入의 儀軌 種類와 內容 | 3. 刻手의 動員     |
| 2.1 神道碑營建廳儀軌         | 3.1 官衙 所屬의 刻手 |
| 2.2 表石營建廳儀軌          | 3.2 地方의 民間 刻手 |
| 2.3 禮葬都監儀軌와 墓所都監儀軌   | 4. 刻手秩의 分析    |
|                      | 5. 結言         |
|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논문은 의궤를 기초로 영조년간에 추진된 왕실묘역의 석각사업에 참여한 각수의 동원사실과 그 명단을 분석한 것이다. 아홉 건의 國役に 동원된 연인원은 백여 명이 넘지만 그 이름이 확인된 각수는 39명이다. 각수마다 몇 건의 사업에 동원되어서 실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각수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원에 불참한 사유를 기록한 문건에서만 그 이름이 확인된 각수는 20명으로 대개는 고령으로 병들었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며, 유생이거나 현직에 있어서 제외된 경우도 일부 있다. 도서관에 소속된 각장들이 다수 석각의 일에 참여하고, 동일인물이 옥책이나 죽책각수로 활동한 사실에서 각수는 책판뿐만 아니라 옥, 죽, 석 등 그 재료에 상관없이 글자를 새기는 일의 전문 장인이었음이 확실하다.

要語: 각수, 비석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9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5일

<ABSTRACT>

In this research, by examining the records from Uigwe(儀軌), the names of fifty nine engravers mobilized for the stone carving of royal tomb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ere examined. While more than a hundred engravers were mobilized for nine rounds of national construction works, only the names of thirty nine were identified. However, it is assumed that since each engraver could have been mobilized several times for those construction works, only few remained unknown.

Among those identified engravers, twenty did not actually participate in working because of diseases or unknown whereabouts. Few were exempt from mobilization because they were either yangban(兩班) or officials. Some engravers who belonged to Gyseogwan(校書館) participated in carving not only stones but also jade and bamboos. It is confirmed that those engravers were skilled masters in engraving various kinds of materials, including jade, bamboo, stones as well as woodblocks.

Key words: Engravers, Gravestones

## 1. 緒言

최근 문화재청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外奎章閣 소장본 儀軌 30책의 원문이미지를 국가기록유산 포털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sup>1)</sup> 이들 자료는 인조 때부터 정조 때까지의 것으로 그 중 영조년간에 작성된 것은 모두 14책의 분량이다.

각수가 책판에 글자를 새기는 일은 물론 옥책이나 죽책, 비석에 글자 새기는 일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은 실록과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들어 이미 밝힌 바 있다.<sup>2)</sup> 그러한 사실은 영조년간에 작성된 몇 권의 儀軌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刻手秩에서 校書館 소속의 각수가 옥책이나 죽책의 刻字를 담당할 것을 확인할 수 있고,<sup>3)</sup> 陵의 表石을 營建할 때에 민간 각수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여러 문건에서 확인된다.<sup>4)</sup>

영조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왕실 묘역의 정비 사업에서 石刻의 役事는 무엇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그 일을 허물없이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해 지방의 민간 각수들이 긴급히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전말이 담긴 관련 문건들을 등록해놓은 儀軌야말로 각수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사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수명이 기입된 儀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열거하고, 보다 자세히 각수의 동원 사실과 과정을 살펴보고, 각수질의 분석을 통해 각수의 신분 및 활동상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1) <<http://www.memorykorea.go.kr:7779/webs/arGyujang/Books/BookMain.html>>.

2)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67-81.

3) 『上諭封園都監儀軌』 冊印別工作 工匠秩. 刻手匠劉大昌李時泰朴雲遂.

4)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工匠秩. 刻手劉大昌李時泰朴雲遂外十四名.

## 2. 刻手名 記入의 儀軌 種類와 內容

### 2.1 神道碑營建廳儀軌

각수명이 기입된 神道碑營建廳儀軌는 영조 20년(1744)의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1건이다. 齊陵은 태조의 첫째 부인으로 개국 전에 사망하여 개국 후 추존된 神懿王后의 陵號이다. 그 神道碑文은 태종년간에 權近이 지었는데, 임난 때 碑石이 파괴되어 영조년간에 겨우 다시 세우게 되었는바, 그 과정이 儀軌에 소상히 나타난다. 영조 20년(1744) 8월 7일 宗臣 李梅의 건의로 시작된 일이 11월 4일에 마무리 되었다.

이 儀軌의 내용은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甘結, 儀軌, 書啓, 別工作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관련 문건들은 일자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에 참여한 각수 인원은 먼저 啓辭의 '齊陵神道碑營建廳別單'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석수와 목수 다음 항목에 '刻手 金守萬 等 九名'으로만 기입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각수의 동원 사실은 移關秩의 開城府, 內需司 등의 관련 문건에 보인다.

### 2.2 表石營建廳儀軌

각수명이 기입된 表石營建廳儀軌는 영조 20년(1744)의 「英陵表石營建廳儀軌」, 영조22년(1746)의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 영조 29년(1753)의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그리고 영조 30년(1754)의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등 4건이다.

먼저 英陵은 세종의 능으로 위의 齊陵神道碑와 마찬가지로 종신 李梅의 건의로 일이 시작되었는데, 神道碑를 완성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 3월 22일에 건립이 마무리되었다. 이 儀軌의 내용은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와 같이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甘結, 儀軌, 書啓, 別工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수에 관한 기사 역시 같은데, 「英陵表石營建廳別單」에 '刻手 金壽海 等 十名'으로

각수 인원이 나오고, 그 동원에 관한 사항은 乙丑 正月 10일자 甘結 등에서 자세 히 보인다.

穆陵과 徽陵, 惠陵은 각각 동구릉에 있는 선조와 懿仁王后, 仁穆王后 두 왕비, 그리고 인조계비 莊烈王后, 경종비 端懿王后의 능이다. 모두 영조 22년(1746) 11월 19일 掌令 金翰運의 건의로 일이 비롯되었으며, 이듬해 3월 11일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儀軌의 내용구성이나 각수에 관한 기사는 위의 儀軌와 같다. 사역에 참여한 각수인원은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別單’에 ‘刻手 金壽海 等 十四名’이라 적혀 있다.

禧陵과 泰陵, 孝陵, 康陵, 章陵은 각각 중종 계비 章敬王后와 文定王后, 인종, 명종, 원종의 능이다. 영조 29년(1753) 1월 10일 도감을 설치하고, 3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儀軌의 내용구성 및 각수에 관한 기사항목 역시 위의 예와 대부분 같다. 사역에 참여한 각수는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別單’에 ‘刻手 金壽海 等 十六名(以上 一等)’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지 뒤에 따로 ‘工匠秩’에서 각수명 하나하나를 밝히고 있는 것이 다르다.

厚陵과 顯陵, 光陵, 敬陵, 昌陵, 宣陵, 靖陵은 각각 정종, 문종, 세조, 덕종, 예종, 선종, 중종의 능이다. 주로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영조 30년(1754)에 사업을 결정하여 이듬해 3월 24일에 일을 마무리하였다. 儀軌의 내용구성 및 각수에 관한 기사항목은 위의 예와 같다. ‘七陵表石營建廳別單’에 ‘刻手 金壽海 等 十七名(以上 一等)’으로 그 인원이 나오고, 뒤의 ‘工匠秩’에 개개의 각수명이 기입되어 있다.

### 2.3 禮葬都監儀軌와 墓所都監儀軌

각수명이 기입된 禮葬都監儀軌는 영조 27년(1751)의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와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동왕 28년(1752)의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3건이다. 효순현빈은 영조의 아들인 孝章世子の 비이고, 의소세손은 사도세자의 장남이다.

먼저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의 내용은 座目, 啓辭, 狀啓, 移文, 來關, 稟目, 甘結, 禮關, 儀註, 儀軌, 論賞, 一房, 二房, 三房, 分典設司, 分長興庫, 誌石所, 虞主所, 別工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는 座目, 啓辭, 別單, 移文, 來關, 稟目, 甘結, 禮關, 儀註, 儀軌, 論賞, 一房, 二房, 三房, 分典設司, 分長興庫, 誌石所, 虞主所, 別工作의 순이다. 狀啓와 別單을 달리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역에 참여한 각수에 대해서는 전자의 경우 먼저 論賞항목의 ‘都監工匠別單’에 ‘刻手 金光海(以上 二等)’, ‘刻手 朴元世 等 二名(以上 三等)’이라 기재되어 있고, 뒤의 ‘工匠秩’에는 ‘刻手 尹世東, 朴時昌(以上 校書館)’이 따로 적혀 있는데, 대개는 관아소속의工匠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私匠’임을 밝히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都監諸色工匠別單’에 ‘刻手 朴元世 等 三名(以上 一等), 刻手 金贊興 等 二名(以上 二等), 刻手 李良弼 等 三名(以上 三等)’이 나오고, ‘工匠秩’에 ‘刻手匠 尹世東, 朴時昌(以上 校書館)’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 하권의 ‘工匠秩’에 옥책각수 2명과 죽책각수 9명의 이름이 나오고, ‘各匠人秩’에는 ‘刻手 金壽海 等 十名’의 인원이 나타난다. 이들 문헌에서 각수의 동원에 관한 기사는 ‘都監事目’과 ‘稟目秩’, ‘來關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는 하권이 전해진다. 그 내용은 三物所, 造成所, 大浮石所, 爐冶所, 小浮石所, 輸石所, 表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등으로 각 所에 관한 것이다. 그 중 表石所의 ‘工匠秩’에 ‘刻手 朴元世’ 외 다섯 명의 각수이름이 보인다.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목록을 참고하여 儀軌 상권에는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甘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4 上諡封園都監儀軌

영조 31년(1755) 6월에 元宗의 생모 仁嬪 김씨에게 敬惠의 시호를 올리고 그 묘소를 順康園으로 봉하는 과정을 기록한 「上諡封園都監儀軌」는 그 내용이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禮關, 儀註, 甘結, 書啓, 論賞, 儀軌, 冊印造成所, 廟宇造

成所, 園所造成所, 碑石所, 大浮石所, 補土所, 爐冶所, 小浮石所, 輸石所, 冊印別工作, 廟宇別工作, 園所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수인원은 啓辭의 ‘冊印造成所別單’에 ‘金壽海 等 三名(以上 一等), 劉太昌 等 五名(以上 二等), 韓福萬 等 四名(以上 三等)’이라 적혀 있고, 冊印造成所의 ‘工匠秩’에는 옥책이나 죽책의 각자에 참여한 金壽海 외 12명의 각수명이 따로 보인다. 석각에 참여한 각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하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碑石所의 ‘工匠秩’에 金壽海 등 11명의 각수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冊印別工作의 ‘工匠秩’에는 校書館 소속의 劉大昌, 李時泰, 朴運遂의 이름이 있어 각수의 역할과 신분을 참고할 만하다. 각수의 일이 비석이나 옥책이나 죽책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부분도 없지 않겠으나,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 3. 刻手の 動員

#### 3.1 官衙 所屬의 刻手

왕실의 묘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장인은 그 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중앙관아에 속해 있는 공장의 범위를 넘어 경향의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으며, 각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전체적인 일의 방법과 원칙을 정한 ‘都監事目別單’을 참고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장인들을 각기 해당 관사 및 漢城府 平市署로 하여금 모아 보내게 하였으며, 上司 衙門 및 여러 宮家의 奴子와 砲殺手, 別監, 下人, 奴婢, 羅將은 논할 것 없이 外居 장인까지 도감에서 문건을 보내 불러 들였다.<sup>5)</sup> 당시 많은 인원의 장인들은 왕실이나 중앙의 상급 관아에서 그 신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동원되고,

5)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上卷 辛未十一月十七日 都監事目別單. 一各項匠人乙良 令各其該司及漢城府平市署捉付爲白乎矣上司衙門諸宮家奴子及砲殺手別監皂隸羅將勿論 惟捉使役外居匠人乙良自都監移文捉來爲白齊.

그래도 부족하면 지방에 할당하여 그 수가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사역은 시일이 촉박하여 도감에서는 인원의 동원을 독려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죄를 물겠다고 까지 하면서 지방의 관아를 압박하였다. 그 예는 神道碑石을 마련한 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는데, 役事가 매우 크고 번잡하므로 정해진 인원을 정해진 시각 내에 보내되, 만일에 늦어지면 죄를 물겠다고 한 문건이 바로 그것이다.<sup>6)</sup> 해당 문건은 工曹를 비롯해 內需司, 尙衣院, 繕工監, 校書館에 보내어졌는데, 校書館에는 각수인원의 동원 때문에 하달되었다.

위의 문건으로부터 3일 뒤 內需司가 올린 牒呈에는 神道碑石을 열기 전에 사역하기 위해 각수 등 인원을 정해 보내라는 甘結을 받았지만 각수는 원래 없으니 起送할 수 없고, 석수는 소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사역에 보내어 남은 인원은 많지 않으나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sup>7)</sup> 이와 달리 儀軌에는 校書館에서 동원했을 각수에 관한 문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齊陵神道碑營建廳別單’에 단지 ‘刻手 金守萬 等 九名’으로만 적혀 있어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을 일일이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校書館 소속의 각수가 동원된 사례는 다른 몇 가지 儀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조년간에 英陵의 表石을 세우는 일을 시작할 때, 먼저 校書館과 內需司에 문건을 보내어 각수 金壽海, 韓福萬 두 사람과 석수 禹弘敏 외 11사람을 모든 잡역에서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급히 보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sup>8)</sup> 英陵의 表石을 각자하는 일에 참여한 각수는 10명으로 모두 1등으로 분류되었다.<sup>9)</sup> 무엇

---

6)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甲子九月初十日. 陵神道碑石趁未凍前畢役事極爲浩繁 一時爲焉石手二十名刻手刀子匠各二十名當刻內各其掌吏等嶺付本廳爲乎矣萬一遲晚甘罪不辭工曹內需司尙衣院繕工監校書館.

7) 上揭書 甲子九月十三日. 刻手刀子匠段元非本司匠人故不得起送爲乎旡石手則亦爲數小之中多數定送於昭寧墓碑閣使役餘存不多十名僅僅推移定送事據.

8) 英陵表石營建廳儀軌, 甘結秋 乙丑正月初十日. 英陵表石營建時使役次刻手金壽海韓福萬石手禹弘敏高世奉南士先馬四先安順金李卜伊金次命李金同金德輝崔宗仁趙分同李遠伊等除本司雜役勿侵星火起送于本廳事校書館內需司.

보다 校書館 소속의 각수가 먼저 동원되고, 여러 각수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 뒤에 다섯 능의 표석을 세울 때에는 校書館과 內需司, 그리고 繕工監에 문건을 보내어 각수와 목수, 석수 등을 정해진 시간 내에 禮曹 直房에 보내어 門見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sup>10)</sup> 해당 사역에 동원된 각수는 16명인데, 이미 8년 전에 있었던 英陵의 表石 使役に 참여한 金壽海와 韓福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장인들의 신분이나 소속은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의 예가 비교적 자세하다. 木手에서 朱簾匠까지 모두 41분야 17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들의 소속이나 동원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이 때 校書館의 각장으로는 尹世東과 朴時昌이 있다.<sup>11)</sup> 한편 『都監工匠別單』에서는 工匠을 1,2,3등으로 나누어 각각 15명, 48명, 209명 모두 272명을 論賞하였는데, 각수 金光海는 2등, 그리고 각수 朴元世 등 2명은 3등으로 분류되었다. 表石의 營建과 같이 각수의 일이 주된 役事와는 달리 석각의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國役에서 그 등급이 낮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당시 墓所都監으로부터 각수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내용은 表石을 刻役할 때에 들어가는 刻刀와 刻釘의 모양과 크기를 각수가 監造해야 불용의 폐단이 없을 것이니 石刻善手 李斗運과 朴元世 중에서 한 사람을 빨리 기송하라는 것이었다. 堂上이 수결하고 이를 해당 방에 분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2)</sup>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를 참고하면, 그 工匠秩에는 朴元世를 비롯해 모두 6명의 각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李斗運(李斗白)이 다른 誌石의 일이 끝나지 않아 朴元世를

9) 上揭書 英陵表石營建廳別單. ‘刻手金壽海等十名以上一等.’

10)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甘結秩 癸酉正月十一日. 陵表石營建廳會同坐起明日平明時出令爲去乎木手石手刻手等當刻內定送于禮曹直房門見待令事繕工監內需司校書館.

11)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工匠秩 參照.

12) 上揭書 來關秩 辛未十二月二十一日. 墓所都監爲相考事表石刻役時所入刻刀刻釘體樣大小令刻手監造然後可無不用之弊是乎等已如是移文爲去乎石刻善手李斗運朴元世中一人星火起送以爲使役之地宜當向事堂上手決內分付該房.

기송한다는 문건도 등록되어 있다.<sup>13)</sup> 朴元世는 여러 儀軌에서 校書館에 소속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민간의 각수지만 솜씨가 좋아 당시 여러 사역에 동원된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여섯 명의 각수가 각자의 일에 참여한 날짜는 차이가 있다. 儀軌를 참고하면, 처음 12월 27일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투입되어 7일을 부여하였고, 그 뒤 正月 3일부터는 3명을 뺀 나머지 3명의 각수가 3일을 더 일하였으며, 그 뒤 正月 6일부터는 1명을 뺀 나머지 2명의 각수가 4일을 더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14일간 연인원 59명의 각수가 일한 셈인데, 각자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다가 뒤로 가면서 점차 더 적은 인원, 능숙한 소수의 각수만이 남아 일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로써 본다면 각수를 論賞할 때 그 등급은 해당 각수의 기술과 역할, 그리고 부여한 날짜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 3.2 地方의 民間 刻手

글자를 새길 일은 많은데 기일이 촉박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필요한 각수를 가까운 지역에서 동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로 조선초기에 조성된 厚陵 등 7릉의 표석을 세우는 일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민간 각수가 필요했다. 영조 31년(1755) 정월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중앙에는 약간의 장인밖에 없어서 기일 내에 일을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도감에서는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의 강화부, 개성부, 광주부에 이문을 보내어 동원할 각수인원을 한정하였다. 특별히 金信長과 張天命 두 사람을 지명한 광주부를 제외하고 그 수는 모두 10명씩이었다.<sup>15)</sup> 다른 儀軌를 포함해 지방 관아별로 드러난 각수동원의 사례를

13)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表石所 來關秩. 刻手李斗白朴元世身乙起送事關是置有亦李斗白段誌石之役姑未完畢故不得起送是遣朴元世段再昨日嚴飭下送矣.

14) 上揭書 表石所 稟目秩. 刻手六名十二月二十七日始役七日赴役後正月初三日三名減去三名十日赴役後同月初六日一名減去二名十四日赴役後同月初十日減去.

15)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移文秩 乙亥正月初二日. 今此七陵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2.1 경기감영

嬉陵과 泰陵, 孝陵, 康陵, 章陵 등 5릉의 표석을 세울 때 해당 도감이 경기감영에 개성, 광주유수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날짜에 이문을 보내어 해당 읍에 독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sup>16)</sup> 그 밖의 일을 포함해 개성부, 광주부, 강화부와 각수의 동원 문제로 왕래되었던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2.1.1 개성부

嬉陵 등 5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에 해당 도감에서 개성유수에게 문건을 보내어 役事가 전에 비해 몇 배 많으나 인원은 부족해서 일을 기일 내에 마치기 어려우므로 각수는 5명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다.<sup>17)</sup> 그 나흘 뒤에 개성유수는 문건을 보내어 개성부에 약간의 석수는 있는데, 御營廳의 요구로 5명을 이미 보냈고, 나머지 남은 5명은 우선적으로 올려 보내겠지만, 각수는 원래부터 관내에 없었다고 하였다.<sup>18)</sup>

그러나 도감에서는 다시 개성유수에게 문건을 보내어 일찍이 기송한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 각수 5명을 원래 주문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sup>19)</sup> 이에 개성부는

石營建之役比前倍蓰京案付若干匠手勢難及期完役是如乎道內附近邑所居刻手限十名刀子匠等定色吏罔夜領付俾無愆期之患爲乎矣到付日字爲先回移以爲憑考之地向事江原道刻手十名忠清道刻手十名刀子匠五名江華刻手十名刀子匠五名開城府刻手十名刀子匠十名廣州刻手金信長張天命等.

- 16)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移文秩 癸酉正月十九日. 到關即時嚴飭該邑使之定色吏罔夜領付都監俾無愆期之患宜當相考施行向事.
- 17) 上揭書 移文秩 癸酉正月十九日. 石手十名刻手五名刀子匠朱小老味等七名等身乙定色吏罔夜領付都監俾無愆期國役之地向事.
- 18) 上揭書 來關秩 癸酉正月二十三日. 刻手匠段本府境內自前元無是遣.
- 19) 上揭書 移文秩 癸酉正月二十七日. 回關內節該石手五名分付起送是乎於刻手段本無境內刀子匠一名癘疫方痛不得起送事關是置有亦今此表石刻役萬分爲焉而如是煩移事甚不當券不喻更考謄錄則曾有起送之事同刻手五名刀子匠七名依前關定色吏罔夜起送 領付本廳俾無莫重國役停止之廢宜當向事.

기송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 일인지 알 수 없고, 그 때 각수의 이름이라도 기재되어 있는지, 각수라 칭하는 사람이 현재 하나도 없어 비록 기송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다시 보고하였다.<sup>20)</sup>

2년 뒤 7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에도 이 일은 반복되었다. 그 때는 개성부에 원래 각수가 없고, 그나마 석수도 진흙 끝에 흩어져 기송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1)</sup> 하지만 십여 년 전 齊陵神道碑를 영건할 때에 작성한 儀軌에는 개성부가 보낸 문건에 神道碑로 쓸 돌을 이미 운반해서 룡에 옮겼고, 하루 이틀 사이 治鍊하면 刻字하는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개성부에 속한 각수 朴泰鳴, 朴時台, 陳茂尙, 金哥 등이 얼마 전 留守의 碑役에 사역을 가서 불러다 올려 보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sup>22)</sup>

다음날 개성부에서 보낸 첩정에는 朴東明은 양반으로 이미 經院 齋任을 거쳤으므로 長陵의 사역 시 유생을 장인으로 사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부역을 불허하였으니 다시 關文을 기다려 거행하겠고, 陳茂尙은 나이가 70으로 눈이 어두운데 그래도 보내라 하면 보내겠지만 진퇴를 고려하길 바라고, 朴時台는 개성부 유생인데 關文에 의거해 기송하지만 진퇴를 참작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朴東明은 비록 유생이라고 하지만 이미 각수로 칭하였고, 천한 사역이 아니니 막중한 國役에 다시 關文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기송하고, 陳茂尙은 이미 연로한 사람이라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려보내고, 朴時台는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다.<sup>23)</sup> 하지만 朴東明을 포함한 세 사람의 이름이 儀軌의 명단에

---

20) 上揭書 來關秩 癸酉二月初四日. 未知謄錄在於何年而期時刻手果有姓名載錄是喻目今刻手稱名者無一名匠案付錄之事則雖欲起送其勢末由是在果.

21)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來關秩 乙亥正月初十日. 本府元無案付刻手刀子匠是遺石手段在前案付者只是六名而昨年關賑之餘流離未還是乎等 以不得起送爲去乎.

22)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移關秩 甲子九月二十六日. 神道碑石既已運入陵所今方治鍊一兩日之內畢鍊付字入刻之役一時爲焉本府北部厘正里居刻手朴泰鳴南山面居朴時台城內地八里居陳茂尙溫乙郎長里居金哥稱名刻手等及頃日留守碑役時使役石手并以囚次知定色吏今日內押領現身受到付放送爲旅.

23)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來關秩 甲子九月二十七日. 朴東明段本以兩班已經院齋任故長陵役時以儒生之人乙匠手使役不當是如不許赴役是乎等以渠又萬端稱冤此則 何以爲

기입되지 않은 걸로 보아 당시 이들의 동원은 무위로 끝난듯하다.

### 3.2.1.2 광주부

禧陵을 비롯한 5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 광주부에 각수 朱世贊, 도자장 朴萬根 등 5명과 석수 10명을 기송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부에서는 각수 朱世贊과 도자장 朴萬根 두 사람 밖에 없는데, 朱世贊은 타지로 일을 나갔고, 朴萬根은 병에 걸려 생사를 분간 못할 상황이라 기송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sup>24)</sup> 이에 도감에서는 刻役이 급하니 출타자에게 기한을 정해 기송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儀軌의 工匠秩에 그 이름은 기입되어 있지 않다.

### 3.2.1.3 강화부

禧陵 등 5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 강화부에 각수는 6명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sup>25)</sup> 그 열하루 뒤에 강화부가 보낸 문건에는 해당 지역 내에 석수는 몇 명 있는데, 지난해 懿昭墓 營建所에 부역을 가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역 내에서 각수로 일컬어지는 자로 金景夏는 몇 년 전 사망했고, 金處祥은 현재 鐵申 別將이며, 李胤祥和 朴東燁은 타지로 가서 없고, 車哲輅는 고질병으로 전신을 쓰지 못하며, 남은 사람이라고는 崔武京 한 사람뿐인데 나이가 70이 넘어

之爲乎喻更待關文舉行計料爲乎於陳武尙段今年七十頭白眼暗是如稱說爲乎矣此則起送爲去乎詳考進退教是乎於朴時泰金德五等段置此皆是本府儒生是乎矣依關文起送爲去乎於(中略)手決內朴東明則雖曰儒生既以刻手爲稱則此非賤役雖閭閻尙可修用其手況莫重國役其欲稱頭乎待更關星火起送爲於陳武尙段既是年老之人則留之無益故使之還送爲於其餘兩人亦令留待.

24)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來關秩 癸酉二月十一日. 本府元無此等匠手案付者境內只有刻手朱世贊刀子匠朴萬根等兩漢而世贊段令前出他是遣萬根段置以時患方在死生未分中故不得起送爲去乎相考施行向事堂上手決內即今刻役一時爲急令前出他者刻期知委起送爲於.

25)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移文秩 癸酉正月十九日. 石手十名刻手六名等身乙定色吏罔夜領付都監俾無愆期國役之地向事.

눈이 어둡고 병이 많아 거론할 바가 아니지만, 石役이 중차대한 만큼 부득불 기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나이 70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역하기 어려우니 내려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sup>26)</sup>

그 뒤 7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에도 한성에 장인이 부족하여 강화에 인원의 동원을 요구하였는데, 강화부에서는 장인들이 몇 년 사이에 사망하거나 유리되어 보낼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하였다.<sup>27)</sup>

### 3.2.2 황해감영

嬉陵 등 5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에 황해감영에도 이문을 보내어 각수 동원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때에는 특별히 白川의 姜德周, 林太番 등과 金川의 徐命齊를 지정해 이들이 10일내에 도감에 올 수 있도록 白川과 金川 두 읍에 지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8)</sup> 이에 대해 황해감영은 며칠 뒤인 2월 5일에 문건을 보내어 두 읍에 하달한 즉, 白川郡의 각수 姜德周는 행상 차 지난달에 평안도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林太番은 흥진을 앓았다 겨우 나아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sup>29)</sup> 徐命齊는 그 아들이 발괄을 내어 풍병으로 오래 병을 앓아 사지가 멀쩡하지 않다고 보고 받았음을 알렸다.<sup>30)</sup>

26) 上揭書 來關秩 癸酉正月三十日. 刻手元無案付而府底刻手爲名者金景夏段年前身死金處祥段時任鐵串別將李胤祥朴東燁段出他車哲輅段以痼疾全身不遂餘存者只是崔武京一人而年過七十眼昏多病不可舉論於莫重刻役是乎乃今此石役事體至重故武京一人不得不起送爲去乎相考施行向事堂上手決內七十眼昏之人何可使役乎還爲下送.

27)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來關秩 乙亥正月初九日. 本府匠手年來或爲死亡或爲流離殆盡零落今無一名可使者毋不喻.

28)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移文秩 癸酉正月二十八日. 到關即時白川刻手姜德周林太番等三名金川刻手徐命齊等身乙定色吏來月初八日及良領付都監事 白川金川兩邑良中嚴明知委俾無愆期國役之向事.

29) 上揭書 來關秩 癸酉二月初五日. 卽接白川郡公兄文報內本郡刻手姜德周段以行商次去月分入往于平安道姑未還來是遣林太番段纔經紅疹尙未起動并不得起送是如爲有等以姜德周段使之督還任太番段置待差卽爲一併起送之意嚴飭分付爲於爲先回移爲去乎相考施行向事堂上手決內(中略)罔夜起送俾無國役遲滯之患向事.

30) 上揭書 來關秩 癸酉二月二十七日. 徐命濟身乙使之推捉則其子白活內其父命濟以風病經

### 3.2.3 충청감영

厚陵 등 7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 당초 각 읍에 배분된 각수는 洪州 3명, 沃川 2명, 大興 1명, 恩津 4명 등 도합 10명이었다. 충청감사가 도감에 보낸 문건에서는 각수가 지역 내에 이들 3읍 10명뿐인데, 成案이 오래되어 그 存沒을 알 수 없고, 실제 洪州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병 상태이며, 恩津은 네 명의 각수가 있는데, 두 명은 이미 보냈고, 나머지 두 명은 일찍이 흩어져 행방을 몰라서 배정된 인원을 올려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sup>31)</sup>

같은 날 沃川 군수의 첩정에서 해당 군에 배정된 각수 2명을 올려 보낸다고 보고하였는바,<sup>32)</sup> 당시 동원된 전체 각수 가운데 두 사람은 沃川 출신의 민간 각수 임이 분명하겠다. 역시 같은 날 恩津 현감이 올린 첩정에는 해당 현에 분정된 각수 千云星, 鄭卜同, 金今才, 徐尙建을 올려 보낸다고 했는데,<sup>33)</sup> 실제 공장질 명단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때가 지나서 제외되었는지, 이미 인원이 충분해 제외되었는지 사정을 알 수 없다.

### 3.2.4 강원감영

厚陵 등 7릉의 표석을 영건할 때, 강원감사가 보낸 문건을 참고하면, 강원도에서 각수는 10명을 보내라고 했는데, 본래 도내에는 각수 수가 적고, 솜씨가 좋은 자는 없지만, 각별히 2명을 가려 뽑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原州牧에 문서를

年沈痼四肢不仁運身不得是如爲臥乎所莫重國役刻手不可以其矣白活準信乙仍于同命濟使之擔來看審其病形則中風已久肢體不用.

- 31)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來關秩 乙亥正月二十九日. 道內刻手只是數三邑十餘名而此亦成案已久莫知其存沒是乎矣一併分定是如乎其中洪州所定二名中一名身死一名方在重病重是如故更爲移定恩津則該邑所報又以爲刻手四名前已上送二名曾前流離不知所向是如爲臥乎所同刻手既已盡數分定而有頗如此更無可移之邑不得如數上送爲去乎相考施行向事.
- 32) 上揭書 來關秩 乙亥正月二十九日. 本郡卜定刻手二名定色更知委上送爲只爲.
- 33) 上揭書 來關秩 乙亥正月二十九日. 本縣分定刻手千云星鄭卜同金今才徐尙建等定色吏領去上送爲只爲.

보내 지시하겠다고 하였다.<sup>34)</sup> 하지만 그 사흘 뒤 原州牧에서 보고한 내용은 사역 할 각수 2명이 분절되었는데, 과거에는 약간의 각수가 있었으나 2년간의 饑荒 끝에 모두 흩어지고 없어서 단지 1명만을 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5)</sup>

#### 4. 刻手秩의 分析

각수의 명단은 儀軌에서 주로 工匠秩, 또는 工匠別單의 형식에 기입되어 있다. 그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수의 신분이나 참여회수, 포상의 등급 정도이다.

영조 20년(1744)의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부터 동왕 31년(1755)의 「上謚封園都監儀軌」까지 모두 9건의 儀軌에 그 이름이 기재된 각수는 모두 59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에는 실제 刻字의 사역에는 동원되지 않고, 그 불참의 사유를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등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에서만 그 이름이 보이는 각수도 20명에 이른다.

여러 儀軌 가운데 영조 20년(1744)의 「英陵表石營建廳儀軌」, 동왕 27년(1751)의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동왕 28년(1752)의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3건의 문헌은 각수의 일부가 校書館에 소속된 공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신분만이 아니라, 책관의 각자를 담당했던 校書館의 각수들이 刻板이 아닌 石刻의 일도 감당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름이 기재된 각수는 金壽海, 朴時昌, 尹世東, 韓福萬 네 사람인데, 이들은 해당 儀軌가 아닌 다른 4건의 문헌에서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들이 참여한 사역의 건수를 합하면 모두 16회에 달한다. 이는 일반 각수가 참여한 평균 건수 2회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다른 儀軌들은 단지 校書館에 소속된 각장이라는 사실

34) 上揭書 來關秩 乙亥正月二十二日. 道內刻手本來數少之中善手者絕無故其中各別抄擇只是二名乙仍于卽卽定色吏罔夜領付之意刻手所居原州牧良中發關分付爲有置相考施行向事.

35) 上揭書 來關秩 乙亥正月二十六日. 本州曾前則有若干刻手是如可兩年饑荒之餘盡爲流散今無案付刻手關文之下亦不容全然頃報以一名知委起送爲只爲.

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서 나머지 35명의 각수 가운데에는 校書館 소속의 각장이 다소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전해지는 다른 종류의 儀軌들을 통해 확인된다.

각수가 장인의 신분만이 아니라, 양반인 유생이나 현직에 있는 관원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都監에 전달된 문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강화부의 시임 鐵串 別將 金處祥, 개성부의 유생 朴泰鳴(東明), 朴時台 등이 바로 그들이다. 다른 장인 계층의 각수들이 고령이나 질병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고, 출행의 이유로 소재지가 불확실해 동원되지 못한 것과는 사뭇 다른 이유로 그들은 동원에서 제외되었다. 다른 관점으로 책판의 경우와 달리 그 명단에 刻僧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서 사찰에 소속된 각수들의 경우, 석각보다는 각판에 더 전념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적인 성격의 國役に 불가의 승려들의 동원은 아예 고려되지 않았는지 좀 더 궁구할 필요가 있겠다.

신도비나 표석의 영건청과 달리 석각의 일 외에 옥책이나 죽책의 제작 일이 추가되는 예장도감의 경우, 따로 옥책이나 죽책의 각자를 감당한 각수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명단은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옥책각수 張世周와 朴元世, 죽책각수 金光海 외 8명은 대부분 다른 石刻役に 동원된 사실이 목록을 통해 확인되는데, 옥책각수의 경우 각각 3회와 5회에 걸쳐 해당 기간 동안의 국역에 동원된 것으로 보거나, 石刻善手라고 일컬어진 명칭을 보아서도 당대 가장 뛰어난 솜씨를 지닌 각수였음이 분명하다. 당시 石刻善手로 거명된 朴元世와 李斗白은 옥책각수인 張世周와 더불어 대부분의 사역에서 1등으로 그 공이 분류된 인물들이었다.

<표 1> 각수명 목록

번호	각수명	회수	1744 신도비 영건청	1744 표서 영건청	1746 표서 영건청	1751 예장 도감	1751보소 도감	1752 예장 도감	1753 표서 영건청	1754 표서 영건청	1755 분원 도감	비고
1	姜德周	0							관	공장질	1755 분원 도감	황해매천
2	姜壽聃	2							공장질	공장질		姜時聃/1등(2회)
3	姜喜得	1							공장질			1등
4	金 哥	0	이관									개성
5	金景夏	0						공인질	관			강화
6	金光燾	1				별단		공인질				죽쇄각수
7	金光海	2						공인질				2등/죽쇄각수
8	金今才	0										충청은진
9	金守萬	1	별단									
10	金壽海	6		별단 감결	별단			각장인질	별단 공장질	별단 공장질	별단 공장질	校書館/1등(4회)
11	金信長	0								사목		경기광주
12	金贊興	4					공장질	별단	공장질	공장질		2등. 1등
13	金處祥	0							관			강화/질꽃별장
14	金天澤	1					공장질					
15	金致鶴	1									공장질	
16	金弼雲	1									공장질	
17	南泰白	2						공인질			공장질	죽쇄각수
18	朴東暉	0							관			강화
19	朴時昌	2				공장질		공장질 공인질				校書館/죽쇄각수
20	朴時台	0	이관									개성/朴時泰
21	朴雲遂	3						공인질			공장질	朴雲秀, 朴云守 죽쇄각수/1등

22	朴元世	5																		3등, 1등(3회) 석각선수, 옥책각수
23	朴春建	1																		1등
24	朴泰鸣	0	이관																	개성/유생/朴東明
25	朴泰輝	1																		
26	徐命齊	0																		황해금천
27	徐尙建	0																		충청은진
28	宋德才	1																		공장질
29	安世彦	2																		공장질
30	禹延弼	2																		죽책각수
31	元一成	1																		禹鼎弼/1등
32	元興富	2																		1등
33	劉大昌	3																		1등
34	劉道昌	1																		별단 공장질
35	尹世東	2																		공장질
36	尹世泰	1																		校書館
37	尹殷弼	1																		죽책각수
38	李大興	2																		
39	李斗白	3																		1등, 1등
40	李時泰	3																		李斗運/석각선수(1등(2회))
41	李良弼	3																		죽책각수/1등
42	李億年	2																		李良泌/3등, 1등(2회)
43	李胤祥	0																		1등
44	李振弼	1																		강화
45	林太番	0																		1등
46	張世周	3																		황해배천
47	張天命	0																		張世柱/옥책각수(1등(2회))

48	鄭卜同	0															충청은진
49	朱世贊	0								이문							경기광주
50	池漢相	1														공장질	
51	陳茂尙	0															개성
52	車卜興	1								공장질							1등
53	車哲裕	0								관							강화
54	車喜得	1															1등
55	千云星	0															충청은진
56	崔武京	0								관							강화
57	韓萬福	1								공인질							韓福萬/숙채각수
58	韓福萬	4								공장질							校書館/1등(2회), 3등
59	韓壽大	2								공장질							1등(2회)

## 5. 結 言

구 외규장각 소장본 儀軌의 기록을 중심으로 영조년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왕실 묘역의 석각역사에 참여한 각수에 관해 살펴보았다. 밝혀진 주요한 사항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각수명이 기입된 儀軌는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英陵表石營建廳儀軌,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上諡封園都監儀軌 등 9건으로 모두 59명의 각수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그 중 20명의 인원은 실제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석각 역사에 참여한 각수의 명단은 다른 장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儀軌의 공장질이나 별단에 기입되어 있고, 동원되지 않은 인원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관아가 도감에 보낸 문건에 주로 등재되어 있다.

공장질에 각수의 校書館 소속을 밝힌 儀軌가 일부 있다. 別單의 경우 대부분 논상의 등급에 따라 대표 1인을 기입하는 형식인데, 등급은 각자의 숙련도, 솜씨, 역할, 부여한 날짜에 따라 정해졌을 것이다.

석각의 역사가 여러 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주변 지역의 솜씨 있는 민간각수들이 우선적으로 동원되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각수의 이동이 잦고, 기록이 정확하지 못해, 또 상당수 각수가 고령에 병들어서 도감이 정한 인원을 충당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校書館에 소속된 소수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각수들이 석각의 國役に 동원될 수밖에 없었는데, 간혹 양반의 신분이나 관직에 있는 이유로 그 일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校書館에 소속된 각수가 석각의 일에 자주 참여하고, 옥책이나 죽책을 새긴 상당수의 각수들이 다른 석각의 일을 담은 工匠秩에 빈번히 포함된 사실은 당시 각수가 각자할 대상 재료 즉, 나무나 옥, 돌에 상관하지 않고 刻字라는 전문화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

「上謚封園都監儀軌」.

「英陵表石營建廳儀軌」.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67-81.